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먼저 향하게 만듭니다.

주기도문은 ‘연합’을 지향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 영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국가와 인종과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별과 세대 간의 갈등이 충만한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겹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엡 4:1-6).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누군가에게 피해나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친밀함과 거룩한 초월성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친밀함으로 다가가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와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합니다(마 6:9).

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나와 신앙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나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정신에 부합합니까?

- ① ‘나’만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 ②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